

치솟는 물가에 집값 부담...“결혼할 수 있을까요?”

광주 아파트 평균 분양가 m²당 550만8000원... 지난해보다 18.3% ↑ 소파·침대 등 가구 소비자물가 2배 이상 상승... 혼수비용도 크게 올라

“이래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와 결혼 고민이 깊다는 김모(33)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 간다고 했다. 서로 결혼할 마음은 크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집값 탓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요즘 광주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30평대가 7~8억 원이고 25평대도 5억 원을 넘어선다”며 “청약에 당첨되도 걱정해야 할 만큼 집값이 턱없이 올랐다. 아무리 결혼을 위해 돈을 모은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저렴한 집에서 시작할 생각도 했지만 그마저도 3~4억은 기본이 된 것 같다”며 “돌이

벌어서 값이나가면 될 수 있겠지만, 집값 탓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광주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구 가격 역시 크게 오르고 있다. 이처럼 집값과 혼수 필수품인 가구의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코로나19 이후 결혼 성수기를 맞아 지역 신혼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m²당 491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1만2000원보다 11.37% 올랐다.
 광주의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 6월 m²당 465만6000원에서 올해 550만8000원으로 18.3%(85만2000원)나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평당(3.3m²) 분양가로 계산하면 1536만4800원에서 1817만6400원으로 1년 새 1평당 281만1600원이 오른 셈이다. 또 평당 분양가 역시 1800만원을 돌파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광주의 분양가는 5대 광역시와 세종시를 포함해 6개 도시 중 부산(m²당 624만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해서는 서울(967만5000원), 제주(732만6000원), 부산, 경기(586만8000원)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비싼 집값 탓에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가구 물가마저 크게 올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소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15로 지난해 동월보다 20.7% 상승했다. 지난 4월 1.5%에서 5월 20.7%로 급등한 뒤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달 책상의 물가 상승률은 11.3%였고, 싱크대는 9.6%였다. 침대는 6.9%, 의자는 6.8%, 식탁은 6.3%였다.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7%)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요 가구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가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구 업계 1위 한샘은 지난해 5차례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올해 들어서도 1~3월 연이어 세 차례 침대와 학생 가구 등의 가격을 올렸다. 또 홈퍼니싱 부문의 전 품목 가격을 평균 3%대 인상할

계획이다.
 현대리바트도 지난해 세 차례 가구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올해 1월 가정용 가구 브랜드의 소파와 침대, 의자 등의 오프라인 매장 가격을 약 5% 정도 올렸고, 이달 5일에도 가정용 가구 일부 품목의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이케아코리아와 일룸은 지난해 세 차례, 실리침대와 템퍼는 두 차례 가격을 올렸고, 에이스침대와 신세계가사, 에몬스, 예넥스 등도 지난해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광주의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가구 브랜드들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한동안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혼수를 구매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1000억원 특별 지원

최대 3억원 1.0%포인트 금리감면 수도권·중부지역까지 대상 확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집중호우 피해를 돕기 위해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1000억원(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한도로 조성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전남 및 이밖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충청권, 중부지역까지 확대했다. 업체당(개인사업자 포함) 최대 3억원, 개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0%포인트 금리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피해업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0%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업체들의 피해사항을 재해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힘든 시기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등 산불·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발빠르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꾸러미 전달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매년 설·추석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명절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역인재 육성...광주신세계, 대학생 산학협력 현장실습

전남대 3~4학년 대상 운영 중

광주신세계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현장실습 운영한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지난 달 26일부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전남대학교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광주신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참여 대학생 9명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4주간 현장실습을 통한 진로탐색, 경력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선 1주차 신세계 및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 2주차는 인사, 총무, 경리 등 지원 부서에 대한 이해 교육, 3주차는 백화점 개점행사 및 사은행사 등 마케팅 전반, 4주차는 직접 판매 및



광주신세계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참여한 전남대 학생들이 3주차 교육인 백화점 개점행사 및 사은행사 등 마케팅 전반에 대한 교육을 듣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고객 응대 등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 현지법인의 역할에 기여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지역 대학과 기업간 산학 협력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헤어 관리 집에서 손쉽게”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블루어 매장에서 직원이 장마철에도 손쉽게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헤어 스타일러 제품을 16%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유업계도 가격인하 동참...매일유업 8월부터 컵커피 인하

매일유업이 오는 8월부터 컵커피 제품 가격을 내린다.
 17일 유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컵커피 제품 14종의 가격을 8월 1일부터 100~200원 인하한다. 이에 따라 마이카페라떼 마일드(220ml)의 편의점 가격은 2200원에서 2100원으로 내려간다. 바리스타스 에스프레소 라떼(250ml) 가격은 27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9.00 (-9.30)
↑ 코스닥	898.29 (+2.01)
↓ 금리(국고채 3년)	3.611 (-0.003)
↑ 환율(USD)	1266.60 (+0.80)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